

# 19세기 북미의 어바니즘과 옴스테드의 공원상\*

신명진\*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I. 서론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조경 계획, 설계, 도시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인물로, 다수의 조경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헌을 남김으로써 지금까지도 조경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 분야 전반에 걸쳐 옴스테드의 공원상(park imagery)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당시 도시 공원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탐구를 위해 19세기 북미의 어바니즘을 조망했다.

19세기 중후반 북미의 도시화(urbanization)와 어바니즘(urbanism)의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 당대 문학가의 도시에 대한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옴스테드의 공원관이 실제로 그의 도시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다루었던 농본주의(agrarianism)와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개혁주의 도시관을 살펴보고,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풍부한 담론을 다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 작업에 드러난 옴스테드의 도시관을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북미의 문학계 인사였던 옴스테드의 조경 작업이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도시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조망하고자 했다.

## II. 19세기 북미 문학계의 어바니즘

### 1. 어바니즘의 정의

도시화 연구에 비해 어바니즘 연구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어바니즘 연구가 도시화의 결과로서 도시에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바니즘에 대한 초창기 이론가인 루이스 위스는 어바니즘이란 “도시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혹은 태도”라고 정의했다(Wirth, 1938: 2). 또한 조경 이론가 찰스 왈드하임은 어바니즘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도시, 도시의 체현, 설계와 계획을 통한 도시의 변화 모두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어바니즘이 “도시화의 과정과 산물에 대한 경험이자 연구이자 개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Waldheim, 2018: 12-13).

즉, 어바니즘은 도시 그 자체, 도시의 내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며, 도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종의 사고의 틀이다. 나아가, 조경 연구에서 어바니즘은 도시화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관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바니즘 연구는 일종의 역사학적(historiographical) 관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2. 19세기 북미 문학계에 나타난 어바니즘

19세기 북미 사회에서 어바니즘, 나아가 도시 공원 담론이 발달한 배경에는 개혁적 종교 활동의 대두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장(social field)의 발전, 그리고 미국 남북전쟁 전후라는 역동적 사회 분위기가 존재했다. 특히 남북전쟁, 혹은 산업화되고 개인이 강조되고 있던 북부와 농업 중심의 공동체 삶으로 대표되는 남부의 대립은 도시 사회와 공간의 조건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는 데 바탕이 되었다.

본 연구는 19세기 북미의 어바니즘을 관찰하기 위한 틀로서 당대의 문학계를 주목했다. 옴스테드는 공원 감독관 및 조경가의 역할을 담당하기 전에 문학과 저널리즘 분야에 몸담고 있었으며, 공원 감독관으로 임명될 당시에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문학가 휘트먼의 도움을 받았다고 확인된다. 따라서 미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자연 관계에 대한 당대 문학계의 논의를 비교해 봄으로써 옴스테드의 어바니즘, 나아가 공원상을 탐구하는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농본주의 정치가였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19세기 미국 동부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버지니아 주에 대한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근간이 유럽의 산업화 모델이 아닌 농업에 머물기를 요청했고, 국가적 근간을 농부로 설정했다. 김은성은 “자연이 인간사회의 기준과 가치의 근원”이라는 제퍼슨의 글을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중간적 조망(middle landscape)’, 즉 목가적 경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Kim, 2015).

제퍼슨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삶과 철학이 급격한 도시화를 반대하고 19세기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 지적 사조였던 초월주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Park, 2010). 초월주의는 랠프 왈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F1A1060431).

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자연주의 문학 작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개인의 자유, 주관적 직관과 자연 경험의 영성 등 제퍼슨의 주장과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초월주의에서 “인간의 발전이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을 벗어나 더 높이 성장하는”(Park, 2010: 296) 것으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인위적 제도를 부정하고, 과학과 전통, 역사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우선 시했다.

반면, 개혁주의 도시-자연관은 매우 대조적이다. 심진호는 휘트먼이 뉴욕 대도시에 거주하며 도시화의 경험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며, 나아가 시인의 역할을 넘어 조경가의 눈으로 도시를 살펴봤다고 평가한다(Shim, 2014). 휘트먼은 도시적 목가성(urban pastoral)과 도시의 확장성을 동시에 다루며 이상적이고 이중적인 도시 세계를 구축했는데(Farland, 2007), 이는 옴스테드의 공원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도시 확장의 부산물인 자연의 소외와 환경의 상실은 당시 위생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쟁점과 맞물려 도시적 조건 속에서 목가적 이상의 재현, 즉 공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고 짐작된다. 특히 신문 사설을 통해 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부작용의 해결 방안으로 공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옴스테드의 공원상과 일치하는 지점이 발견된다. 심진호는 나아가 휘트먼과 옴스테드가 19세기 중반 “문명-자연, 도시-전원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자연이 곧 도시이며, 도시가 곧 자연이라는 비전을 제시”(Shim, 2016: 111)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즉 도시의 목가성 혹은 도시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매개로서 공원을 내세운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 III.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의 공원상

옴스테드가 센트럴 파크 작업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북미의 미래 사회상에 대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다. 옴스테드는 이에 대해 급격한 도시화뿐 아니라, 기존 도시 조직의 팽창과 인구 과밀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았으며(Olmsted, 1997a), 결국 시민들은 도시화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옴스테드는 인문학적 소양 및 위생과 공중 보건에 관한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상적 도시관을 구축했다. 옴스테드의 도시관이란 목가적 경관의 공원과 도시 조직의 대조, 그리고 도시 조직 속으로 파고드는 파크웨이를 비롯한 새로운 도로 구조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도시와 목가적 경관의 대조

옴스테드와 캘버트 폭스(Calvert Vaux)가 뉴욕 프로젝트 파크(Prospect Park) 설계에 앞서 공원위원회에 발표한 내용에

서 넓은 목초지가 포함된 공원상(park imagery)을 발견할 수 있다. 옴스테드는 도시 공원의 필요성에는 보편적 쾌가 존재하고 그러한 쾌는 “방문객이 공원을 들어섰을 때 느끼는 해방감,” 즉 “확장된 자유의 감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공원이 제공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만족거리”라고 보았다(Olmsted and Vaux, 1997: 81).

나아가 옴스테드는 공원의 경계에 교목 식재를 통해 도시 조직 속으로 공원의 시각적 확장성을 주장했으며, 또한 공원 경계에 세워진 건물에 제한을 줌으로써 공원의 시각적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기도 했다(Olmsted, 1997b). 즉, 옴스테드는 자연을 재현한 공원과 도시 조직이 통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개인의 공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 조직과 공원이 상호 확장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 2. 새로운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파크웨이

조경과 도시 설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옴스테드와 폭스의 공원상은 공원 시스템 설계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의 뉴욕 버팔로 공원 시스템은 도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다(Kowsky, 1987)는 코우스키의 결론은 ‘공원과 도시의 통합적 확장’으로 요약되는 공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이다. 무엇보다 공원을 통한 도시 녹지의 확장을 넘어 공원 시스템을 통한 도시계획은 옴스테드의 어바니즘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당시 옴스테드와 폭스만이 도시 공원의 시스템화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조경가 로버트 모리스 코플랜드가 1869년 일간지를 통해 보스턴을 아우르는 광역 공원 계획을 제안한 점이 확인된다(Copeland, 1872). 또한 아일랜드 출신 정원사 윌리엄 로빈슨의 파리 여행기를 통해 유럽에서도 프롬나드 등 대도시의 조직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obinson, 1869). 본 연구에서 특히 옴스테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설계 및 문헌에 드러난 도시관, 혹은 어바니즘의 반영이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옴스테드는 미국 대도시의 도시화와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세계사적 내러티브 속에 위치시켰으며,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주거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구조에 알맞은 새로운 도로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Olmsted, 1997a: 184). 특히 유럽에서 북미로 건너온 기존 보행 중심 대로가 19세기 산업화 도시에서 요구되는 공공공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일과 주거의 분리, 레크리에이션 수요의 증가, 교통 수단의 발달, 녹지 접근성 등을 근거로 공원과 도로가 결합된 ‘파크웨이’를 새로운 도로 구조이자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 제시했다.

파크웨이의 주요 역할은 시가지 연결, 공원의 확장, 그리고 공동체 배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선진 사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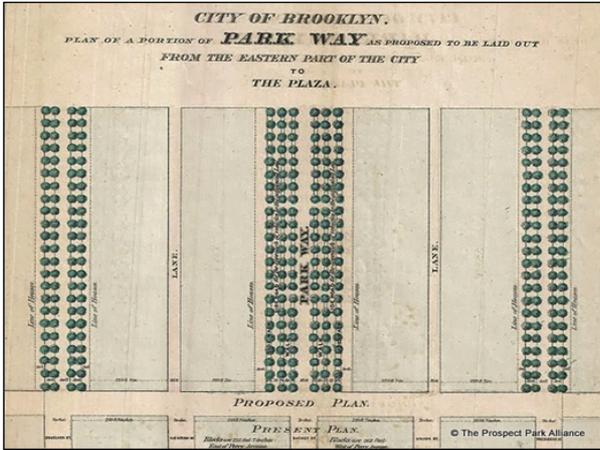


Figure 1. Plan of a portion of park way, 1868  
Source: Olmsted, 1997b: 137

참조한 것이 확인된다(Olmsted, 1997b). 특히 프로스펙트 파크 설계에 제시된 파크웨이의 설계를 살펴보면, 파크웨이를 통해 녹지의 비율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향유하는 공공 녹지 공간, 즉 공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속차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통망의 기능을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 눈에 띈다(Figure 1 참조).

비록 프로스펙트 파크의 파크웨이는 설계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옴스테드와 보스는 보스턴의 에메랄드 네클리스 공원 시스템(Emerald Necklace Park System)에서 다시금 파크웨이와 유사 형태인 선형 공원을 적극 활용했다(Shin and Pae, 2016). 공원 시스템을 통해 도시를 제어하고 보완하고자 했던 옴스테드의 전략은 인구 유입 및 밀도 증대에 따른 도시 확장에 기반하고 있었고, 구조적 뼈대이자 공원인 파크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조직과 공원이 분리불가결한 공원상, 나아가 자신의 어머니즘이 반영된 도시상(urban imagery)을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 IV. 결론

이 연구는 19세기 문학적 인사에서 조경가로 성장했던 옴스테드가 조경 작업을 통해 자신의 도시관을 표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19세기 어머니즘의 태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로우나 에머슨과 같은 초월주의자와 달리 옴스테드나 휘트먼은 상대적으로 도시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주적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인공적 자연, 즉 공원의 기능을 강조했다. 즉, 옴스테드에게 있어 공원이란 도시 조직과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였다. 이는 도로 구조에 대한 옴스테드의 태도에 극명하게 드러나며, 그는 조경과 도시 설계를 넘나들며 도시화 시대에 요구되는 어머니즘을

설계와 문헌을 통해 탐구한 것이라고 보인다.

현재까지도 옴스테드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옴스테드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자 19세기 북미 대도시에서 일어난 어머니즘, 그리고 옴스테드의 다면적 공원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오늘날 그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고 있는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19세기 북미 사회에서 찾아내고, 이를 통해 도시 설계와 조경, 통합적 경관에 유연한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19세기 공원 현상을 해석하고자 했다. 19세기 북미 대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더욱 다양한 시공간의 분석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Copeland, R. M.(1872) *The Most Beautiful City in America: Essay and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ity of Boston*. Boston: Lee & Shepard.
2. Farland, M.(2007) *Decomposing city: Walt Whitman's New York and the science of life and death*, ELH 74(4): 799-827.
3. Kim, E.(2015) *Nature, humans, and society in Thomas Jefferson's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LH 17(2): 11-37.
4. Kowsky, F. R.(1987) *Municipal parks and city planning: Frederick Law Olmsted's Buffalo Park and Parkway System*. *Journal of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46(1): 49-64.
5. Olmsted, F. L.(1997a) *Public Parks and the Enlargement of Towns*, February 25, 1870.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 Supplementary Series Vol. 1*. In C.E. Beveridge and C. Hoffman, ed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71-205.
6. Olmsted, F. L.(1997b) *Report to the Brooklyn Park Commission*, January 1, 1868.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 Supplementary Series Vol. 1*. In C.E. Beveridge and C. Hoffman, ed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12-146.
7. Olmsted, F. L., and C. Vaux(1997) *Preliminary Report to the Commissioners for Laying Out a Park in Brooklyn, New York*, January 24, 1866.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 Supplementary Series Vol. 1*. In C. E. Beveridge and C. Hoffman, ed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79-111.
8. Park, E.(2010) *American democracy and the spirit of toleranc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19(3): 285-311.
9. Shim, J. H.(2014) *The "Democratic" space: Walt Whitman and landscape architecture aesthetic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6(1): 221-240.
10. Shim, J. H.(2016) *Walt Whitman's trans-boundary imag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urbanism*.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8(4): 101-122.
11. Shin, M., and J. Pae(2016) *Olmstedian Linear Parks as urban infrastruc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Spring 2016: 7-8.
12. Wirth, L.(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13. Waldheim, C.(2018) *Landscape as urbanism*. 배정환, 심지수(역) *경관이 만드는 도시*. 서울: 도서출판 한숲.